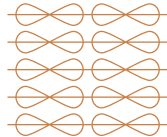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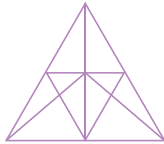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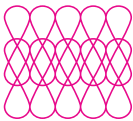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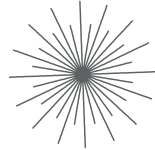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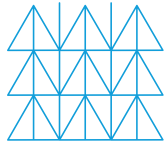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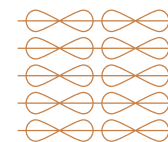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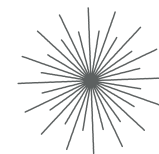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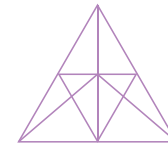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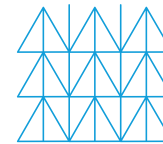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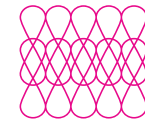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가이드북



나에게 문학이란 가족이다.
나를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해 준다.
나에게 문학은 꿈이다.
꿈은 나만의 세상이니까.

- 동인초등학교 3학년 신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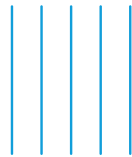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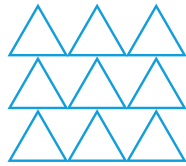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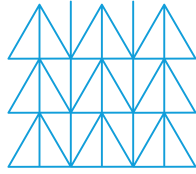


목 차

인사말	6
: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꽃필 수 있도록 주성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소개	8
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10
: 책(冊) + 즐거움 = 생각의 힘 최지혜 바람숲그림책도서관 관장	
문화예술교육으로 어린이 청소년 만나는 방법	14
: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이들을 만나는 N개의 질문 구지원 작가, 문학 강사	
문학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24
: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꿈새미 선생님	
- 발표회	33
- 문집	33
- 도서관 밖 수업	34

문학 프로그램 설계하기	38
: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바로 문학 프로그램 교안	
1. 나는 누구인가요?	39
2.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수업의 주인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1
3. 문학은 아이들에게 ○○한 세상을 보여주나요?	43
4. 프로그램의 열개	43
5. ○○ 주제로 풀어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53
Q&A로 알아보는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56

인사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꽃필 수 있도록

주성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하늘에서
노란 물감이 쏟아진다,
하느님이 색칠 공부하다
물감을 쏟았나 보다

이 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한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상상력으로 풀어낸 <번개 치는 날>입니다.

우리는 ‘문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독서나 단순 글쓰기 활동을 생각하지만, 문학은 자유롭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닌 글 쓰는 과정을 즐기며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지향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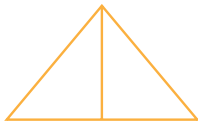
4년 동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중요성과 소통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왔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내 생활문화 예술공간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의 생각이 문학을 만나 더 자유로워져 기발한 생각으로 확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적 경험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소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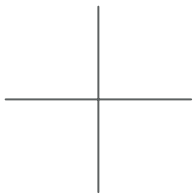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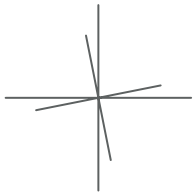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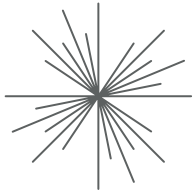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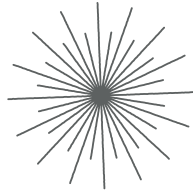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을 쌓고 이를 통해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사업은,

생활 속 가장 밀접한 문화 기반 시설인 도서관에서 문학 안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녹여낸 활동 중심의 문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도록 이끌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통해 토요일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단지 읽고 쓰는 활동에 그쳤던 문학 수업과는 다릅니다. 인문학적 사고와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이란 씨앗에 다양한 활동이라는 양분을 줌으로써 수많은 이야기가 싹 트고, 생각의 꽃이 활짝 피도록 합니다.

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책(冊) + 즐거움 = 생각의 힘

최지혜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관장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의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멋지게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접하는지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책과의 멋진 만남은 어떨까요? 리처드 베리는 말합니다.

“책이 없다면 ... 신도 침묵을 지키고, 정의는 잠자며, 과학은 정지 되고, 철학도 문학도 말이 없을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책이라는 구원의 손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상의 모든 영광은 망각 속에 되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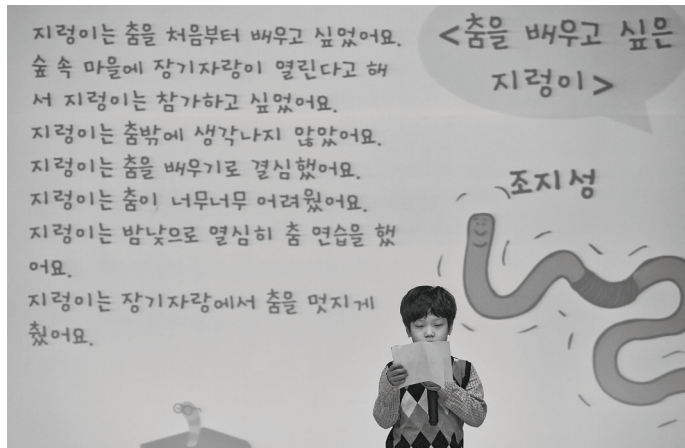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책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책의 맛을 알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스스로 좋은 책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에 이미 책과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책의 즐거움을 모르는 친구는 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에 가도 책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좋은 안내자와 함께 책과 즐겁게 만날 수 있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해 도서관에서 열리는 ‘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책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끌고,
 거기에 즐거운 활동을 통해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아이들에게는 물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책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활동의 중심은 '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활동과 결과물에 집중되어 책이라는 존재는 잊히고, 활동만이 기억된다면 이는 굳이 도서관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도서관', '책', '아이들의 마음', '희망', '행복'... 이러한 단어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는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순수함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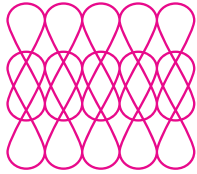
나에게 문학이란 날개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상의 깃털, 행복의 깃털을 심어주어
 나중에 깃털을 모아 날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길잡이이다.
 왜냐하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 장자초등학교 3학년 박시운

나에게 문학이란 인생의 지름길이다.
 인생에 도움을 준다.
 문학은 놀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공부다.
 나에게 문학은 좋은 선택과 같다.
 문학은 기발한 생각의 지름길이다.
 - 동인초등학교 4학년 김민재

나에게 문학이란 생각을 키워주고, 재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언제나 특별한 수업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희망과 사랑이다.
 그 이유는 선생님은 항상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금 같은 시간이다.
 그 이유는 언제나 금같이 귀한 시간 같고 놀기도 하고 글도 쓰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필통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책상이다.
 그 이유는 튼튼한 나의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 수택초등학교 4학년 공채은

나에게 문학이란 생각을 더 키워주고 상상력을 높여주는 것.
 이게 문학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각을 높여주는 놀이이다.
 문학은 나의 생각을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 구지초등학교 5학년 김진희

문화예술교육으로 어린이 청소년 만나는 방법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이들을 만나는 N개의 질문

-아이들은 순응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구지원 | 작가, 문학 강사

1 문학으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기표현 욕구가 ‘쓰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문학은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거꾸로 보고, 다르게 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놀라운 창의력을 보입니다.

문학 강사는 생각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터주고 아이들이 그 위를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지라도 강사의 의견을 먼저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까닭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문학 강사는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문학 시간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음’이 있

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감성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고, 그것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되고, 또 글이 됩니다.

문학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글입니다. 하지만 글을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마음껏 써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힘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글 그림이나 말풍선 등 아이들에 따라 문학적 표현 방식을 다양화하여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쓰고 싶은 것을 쓰도록 합니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자기가 쓴 한 줄의 글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한 줄의 힘은 대단합니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됩니다. 글을 전혀 쓰지 않는 아이가 한 줄을 쓴 것은 글을 아주 잘 쓰는 아이가 한 페이지 이상 써 내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일입니다. 열다섯 명의 아이들을 만난다면 문학 강사는 열다섯 개의 눈과 열다섯 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몰라요”, “없어요”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다른 친구들이 글쓰기를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혹은 “없어요”라고 말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생각하지 않는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매순간 번뜩이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니? 힘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몰라요’, ‘없어요’라고 말을 해버리면, 너의 생각주머니는 움직이지 않아. 너의 멋

진 생각이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져.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뭘까?’ ‘왜까?’ 하고 궁금해해봐. 그러면 너의 생각이 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어떻게 생각이 말을 해요?” “그래 맞아! 너의 말이 맞아! 생각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생각이 말을 할 때가 있지. 네가 생각을 도와준다면 아마 가능할 걸? 아니면 생각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네가 받아 적어줄 수도 있고. (문학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단다.)” 이 말은 괄호 속에 넣어두어도 결국, 생각이 말을 하는 것을 도와줄 때 아이들은 문학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매 시간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만 쓰는 아이는 고집쟁이일까요, 천재일까요?

매 시간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고요? 아이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써보자”라고 말하기 전에 “어머, 경호야,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줄래?”하고 물어봐줘야 합니다. 게임 이야기만 한다고 걱정하기 이전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때 아이의 말 속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다 보면 게임 이야기는 물론 어떤 이야기도 자신의 생활에서 관찰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게임을 모르는 나도 네 이야기를 들으니 게임을 잘 이해하게 되네. 너 참 이야기를 잘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아이는 분명 자신의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의 글쓰기, 말하기 욕망을 일깨워주는 것이 문학 강사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게임에 몰두한 아이도 다른 생활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을 하다 보면 아이도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의 게임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문학 강사)의 ‘서로 배움’이 일어납니다.

3. 글은 쓰지 않고 노트에 자기 이름만 쓰는 아이는 뭐든 귀찮아하는 아이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일까요?

글쓰기 싫어 자기 이름만 빼곡하게 쓰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필을 쥐고 무엇이든 쓰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희야, 너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을 이렇게 빼곡하게 써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도 집에 가서 너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모양으로 내 이름을 쓰면 좋을까? 하트 모양으로 할까? 신발모양으로 할까? 넌 어떤 모양을 좋아해?” 이렇게 글 그림, 글 모양, 글 디자인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 싫어서 했던 행동이 갑자기 재미있어지고 의미가 생깁니다.

4. 글을 지렁이처럼 쓰는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걸까요,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걸까요?

첫째 시간, 재현이는 글을 지렁이처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재현이는 글을 지렁이처럼 쓸까요? “재현아! 너의 멋진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 한 글자라도 알 수 있게 적어줄 수 있어? 힘들면 지금 안 해도 돼. 다음에 말해줘도 괜찮아.” 첫번째 시간을 마치고 재현이의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재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고마워, 지난 시간 재현이가 쓴 문장을 읽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재현이가 글을 써줘서 선생님이 행복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재현이 자랑도 했어.” 이날 재현이는 시 한 편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시 옆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뿌듯합니다.” 재현이는 지렁이처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글쓰기를 할 때 또박또박 쓰는 것을 가끔 잊어

버렸습니다. 재현이 엄마가 찾아왔을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학 시간에는 제가 말해줄 수 있지만 다른 시간에도 재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말해줘야 한다고요. 재현이 엄마는 갑자기 평평 우셨습니다. 재현이를 칭찬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재현이가 글을 쓰면 못 알아본다고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야 재현이가 글을 지렁이처럼 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재현이는 생각이 기발한 아이입니다. 물론, 기발하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이제 식상한 건 아니겠죠?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초등학교 2학년인 재현이는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문학이란 사금 채취다. 슬픔이 들어 있던 돌덩이는 흘러보내고 행복, 웃음이 들어 있는 사금을 채취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은 행복, 행운을 가져다준다.”

5.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아이는 타고난 휘방꾼일까요, 이야기꾼일까요?

쉬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아이가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요?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사는 매 시간 내내 한 아이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아이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승희야, 정말 미안해! 선생님도 너랑 눈 마주치고 너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희는 15명이고 선생님은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쉬지 않고 자기 말을 하던 승희는 고맙게도 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승희는 금방 또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말한 것으로 아이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말도 해주고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두 번 말해주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다른 친구들을 방해한다고 '제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이가 글을 많이 쓴다면 비록 두서없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과 글이 서로 통하는 것 처럼 말 많은 아이와 글 많이 쓰는 아이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말 많은 아이라고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조리 있게 말하고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도 잘 쓸 수 있도록 연결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려면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의 얘기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이면 이미 받은 된 것입니다.

6. 급하게 끝내고 다했다고 말하는 아이는 문학 시간이 시시해서일까요, 할 이야기가 없어서일까요?

몇 줄만 쓰고 심지어는 쓰다 만 듯한 글을 쓴 후 다했다고 손을 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글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글도 썼고, 다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 상태대로 끝나면 다음 시간이 되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스스로 묻도록 궁금증을 유발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꼭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들어주기를 바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줘서 고마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 문학 강사는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확장시켜주어야 합니다. 질문은 아이들의 글 속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뭐지?", "이 이야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만 해도 아이들은 좀 더 생각을 이어가거나 정말 안 했던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상황을 상상하고 계속해서 글을 이어나갑니다.

3 문학 시간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1. 생각놀이가 저절로 글쓰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생각놀이, 말놀이, 몸짓놀이, 미술놀이 등 다양한 놀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놀이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놀이어야 합니다. 글쓰기로 확장시킬 수 있는 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시나리오와 짜임이 꼭 맞아 떨어지는 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순간적인 재미를 주는 게임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고유한 생각을 어떻게 글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2. 3시간의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하는 많은 시간, 그러나 나의 수업인가요, 아이들의 활동인가요?

아이들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각이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분량이라고 준비했던 내용이 2, 30분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 도입을 위해 준비했던 질문이나 자료가 아이들의 생각을 열고, 그 생각이 무한히 확장되어 3시간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 서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반응과 행동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선생님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아이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 아이들과 헤어져 있던 일주일을 이어가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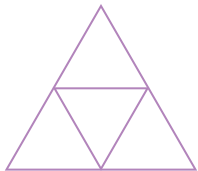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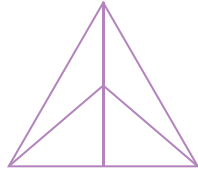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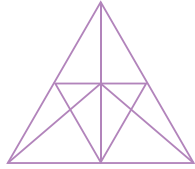
아이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소 아이들은 친구들과 똑같아 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발하고 독특하고 특별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아이들 각자가 최고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 보다 쉽게 자기의 글쓰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많은 자료와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나온 이야기로 아이들 곁에 가고 있나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학습시키고 있나요?

사진 한 장, 작은 소품 하나, 그림책 등을 사용할 때, 강사가 감동한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전달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 에너지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력만으로 자료를 고르고 인터넷에 나온 좋은 이미지와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시간은 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내용은, 전달력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이야기더라도 자신의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프로그램 내용으로 준비한다면 아이들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은 늘 주인공이 됩니다.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시물레이션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꿈새미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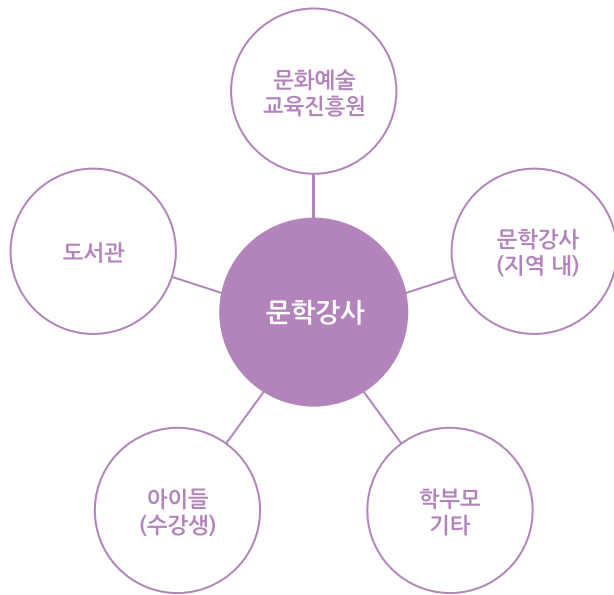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납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강사와 운영업체를 선발해 진행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문학 강사와 지역 도서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성을 강화합니다. 공간의 중심인 지역 도서관과 내용의 중심인 강사의 역량을 강화해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프로그램 주체에 축적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방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 강사가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의 문학 강사는 단순히 수업만을 진행하는 강사가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도서관과 함께 기획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통해 배움을 나누며, 학부모와 소통하고, 다른 도서관의 강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살찌우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방향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주는 명실상부한 이 프로그램의 작가(作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이 같은 시스템의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으로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견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수업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태도로 대응한다면 수업에서도 결국 빈구석이 생겨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도서관과 강사 자신에게도 실패한 경험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강사는 기획자이자 연출가이며 강사로서 자신을 프로그램의 중심에 위치 지워야 합니다. 강사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나간다면 최종적으로 그 효과는 문학 수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배움이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변화의 초기, 강사로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마무리할지 가상의 강사, '꿈새미' 선생님을 통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이름은 꿈새미, 문예창작을 전공한 28살 문학 강사다. 지금까지 약 3년간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왔다. 처음 한두 해에는 정신 없이 교안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못 느꼈는데 3년차가 되니 약간 회의가 들었다. 아니, 반성이라고 해야겠다. 나는 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들까, 하는. 그때까지는 한두 명 글 잘 쓰는 아이들이 나오면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꾸 눈에 밝힌다. 또, 글 잘 쓰는 한두 명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쓸까, 하는 회의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다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여건이 그걸 봐주지 않을 것 같다.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간섭이 들어올 테고 나도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무리하게 되겠다. 아, 어떻게 하나?

2 그런데 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이하, 꿈다락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고를 봤다. 단순히 강사를 뽑는 게 아닌 것 같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맞는데,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신청해 뽑혀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양이다. 진흥원에서는 예산과 프로그램의 방향과 큰 틀을 제공하는 모양이고. 문학 강사도 도서관 담당자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고. 힘들겠는데... 아니지, 어찌면 내가 기획하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 이거다. 좀 힘들겠지만, 신나게 할 수 있겠다. 당장, 신청해야겠다.

3 이왕이면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문학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 시안을 들고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꿈글 도서관’을 찾아갔다. 다행히 도서관 담당자이신 ‘꿈도담’ 선생님(나와 성이 같아서 무척 기뻐!)도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기획하기로 했다. 내가 문학 프로그램을 짜고, 꿈도담 선생님은 예산과 학생 모집과 수업 공간 확보 등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내용을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과 수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세세한 내용과 항목을 공유하고 합의해 정해야 했다. 꿈도담 선생님이 짜신 예산에 수업에 쓰이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짠 수업 내용을 꿈도담 선생님도 알게 된다. 수업과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되는지 매번 물을 필요도 없고, 꿈도담 선생님도 지원할 내용을 매번 묻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기획안을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 기획을 ‘꿈글도서관 꿈꿈 문학 프로그램’(‘꿈꿈’기획)이라고 정했다.

4 수업할 공간을 정하는 일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번 수업에서는 좀 더 활동적인 수업, 입체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공간이 넓어야 하는데, 이 점을 꿈도담 선생님께 미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아이들마다 조금 넓은 책상 하나 정도만 주어지는 공간을 배정받은 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책상을 모아놓으면 되겠지만, 자기 책상과 공동 작업 책상을 좀 분리해놓고 싶었다. 그래서 부랴 부랴 꿈도담 선생님께 이런 점을 설명해드렸다. 다행히 수강생에 비해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다른 강사와 협의해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 창문도 넓어 햇볕도 잘 들어왔다. 컴퓨터와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컴퓨터는 내가 쓰는 노트북을 활용하기로 했고(무겁지

만, 옮겨 담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게 사실 더 편하다), 빔프로젝트는 휴대용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동 수업을 할 때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이럴 때 전화위복이라 하나? 아무튼 공간 확보는 이렇게 했다.

5 몇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쳐 기획안이 완성됐다. 주위에 모니터링을 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진흥원에 신청서를 보냈다. 홍보가 잘 된 탓인지 많은 도서관에서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잘될 것 같은 이 예감은 뭐지? 아마, ‘꿈꿈’ 기획을 정말 신나게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잘돼야 할 텐데, 잘되겠지, 잘될 거야! 예감대로, 기획안이 통과됐다. 당연한 결과는 아니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일정이 이어졌다. 지금은 설명회를 겸한 강사 연수회에 와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에서 꿈도담 선생님은 예산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다. 강사료와 준비물 예산 등도 설명해주었다. 나는 당연히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에 귀를 세웠다. 수업 사례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무엇보다 나를 집중하게 한 것은 발표회 등 프로그램 마무리에 관한 것이었다. 보여주기식 발표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 눈이 번쩍 뜨였다. 아, 내 거친 기획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저 부분이 도움이 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발표회 대신 학부모와 가족들도 참가하는 통합수업을 프로그램 마무리로 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춘 교안을 구성한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보충할 점도 지적을 받았다. 짝 짜인 수업 교안이 오히려 아이들을 놓치게 될 것 같다는 지적. 연수를 마쳤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6 수업 전에 챙길 게 정말 많다. 수업 재료도 옮기고, 청소 상태도 점검하고, 냉난방도 확인했다. 무엇보다 꿈도담 선생님의 업무실과 가까

워서 좋다. 참여자 모집도 완료되었다. 꿈도담 선생님께서 아까 참여자 명단이 적힌 출석부와 참여 신청 이유를 프린트해주셨다. 대기자가 2명,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10%를 좀 넘게 신청했다고 하니, 오케이. 출발이 좋다.

7 드디어 첫 시간. 프로그램 시작 2시간 전에 도서관에 나와 최종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조강사인 후배 다락희는 나보다 더 일찍 나와 이런저런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다. 락희를 추천하길 잘했다. 미더운 녀석, 고마웠다. 매시간 쓰는 교구 성격의 준비물은 일주일 전에 신청해 챙겨왔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챙길 수밖에 없다. 락희가 그 일을 도맡아하기로 했다. 1차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간단한 평가와 다음 시간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의논해야겠다. 다음 준비물은 오늘 점검해서 4일 전까지 준비하면 될 테니까.

자,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하자. 아이들 이름은 다 외웠으니까, 출석 점검하면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천천히 웃어줘야겠다. 출석 때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름을 자주 불러줘야겠다. 출석 점검 때, 이번 문학 시간에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대부분 주뻗주뻗하면서 말을 잘 못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출석 점검 때 못했던 얘기를 구시렁거리면서 하는 아이들이 생겼다. 천천히 아이들 얼굴에 표정이 자리 잡았다. 웃고 떠들고 아랫입술을 내밀기도 하고, 3시간이 후딱 지난 느낌이다. 이제는 잘하는 아이들보다 뭔가 조용하고 구석으로 가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4년차의 내공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그래도 이름이 덜 불린 아이가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였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칠 때, 그 아이 옆에서 마무리하는 얘기를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게 문학이라는, 글은 꼭 글씨로만 써야 하는 게 아니라는, 아직 아이들에게는 알쏭달쏭할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다.

8 프로그램이 벌써 3차시까지 후딱 지났다. 오늘은 4차시 프로그램, 지금까지 서로 얼굴 익히고 친해지는 데 주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제 아이들 이름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태도, 뭘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다. 속내를 잘 못 드러내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이제,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과 요구를 얘기하게 되었다. 아직, 글쓰기는 힘들어하는 아이가 많지만 글은 차차 쓰기로 하고 우선, 공통된 교안을 아이들 각각에 맞춘 ‘맞춤개인교안’으로 수정했다. 그 교안의 첫 번째 적용으로 아이들에게 문학이, 글쓰기가 자신에게 무엇인지 물어볼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한다. 왜 사는지, 그걸 문학 수업에서 물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꿈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은 얘기다. 직업이 아닌, 삶의 자세랄까, 태도? 아무튼 물어보면 아이들은 정말 진지하고 기발하게 나를 웃기고 눈시울을 붉히게 하겠다. 각자의 문학관(?)을 거창한 종이에 꼬불꼬불 적어볼 생각이다. 함께 큰 종이에 적고, 작게 노트에도 적고... 아이들이 아직 이 얘기를 할 준비가 안 됐다면? 강요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겠다. 놀자, 놀다 보면 글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종이와 연필 등 문방사우와 함께 놀자. 책과 함께 놀자. 도서관에서 놀자.

9 시간, 참 빠르다. 매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시간이 참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절반이 됐다. 오늘로 7차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이제 아이들도 수업에 집중하면서 글을 제법 쓰기 시작했다. 물론 아이

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아이들을 모아서 뭘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 혹시,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더라도 그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뒷걸음도 치는 게 문학이 아니던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듯해서, 또 도서관이고 해서 도서관 이용 방법도 익히고 할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글쓰기를 시켰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친하고 한니까 열람실과 서가를 다니면서 떠들었다. 움직임이 조심스럽지 않았는지, 사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꾸짖고, 내게도 주의를 줬다. 꿈다락 참여 아이들을 열람실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와 함께. 물론,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점을 벗어난 것은 혼나도 싸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은... 더욱이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꿈도담 선생님께서도 프로그램 공간에서만 진행했으면 하는 눈치였다. 아이들 실수와 프로그램 내용은 다른 것인데,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무조건 막는 건 아닌 것 같다. 표정을 어둡게 해 얘기를 했다. 씨늘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이미 할 얘기를 마친 다음이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된 아이들이 한 거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었다. 무엇보다 열람실을 드나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서 선생님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백번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지만 내일 도서관에 나가 사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겠다. 꿈도담 선생님께도 다시 한 번. 셋이서 점심도 함께하면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도 물어볼 생각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진행도? 사서로서 할 일이 있으므로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프로그램에 반영할 생각이다. 아, 소통! 참, 힘들다. 그렇지만 그게 문학 아닌가. 더불어 잘 살자는 얘기, 나보다 뒤쳐져도 함께 가자는 얘기, 그게 문학 아닌가.

10

오늘은 9차시 프로그램이다.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당황할 일도 4년차라서 그런지 잘 넘긴다. 무엇보다 교안을 그때그때 수정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춘 교안을 마련했던 것도 주효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강사들 평가 모임에서 했더니 경험이 많은 강사 몇몇은 동의하는 눈치였고, 주로 1, 2년차 몇몇은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나도 그랬다, 그때는. 다른 강사의 경험담이 도움이 됐다. 특히, 도서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다락별도서관의 강사는 도서관 담당자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했다. 설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또 다른 강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징과 변화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생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사실 아이들이 나를 가르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나도 그 심정이 이해돼서 약간, 울적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다섯 번이다. 그중에 한 번은 발표회에 해당

* 발표회는 기본적으로 수강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나 도서관 관계자, 진흥원이나 문체부 관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표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수강생인 아이들이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것, 표현한 것을 작품으로 서로 소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발표회 준비는 기획에서부터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도록 하고, 강사는 도와주는 위치에만 있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연출이나 스테프도 스스로 경하고 발표할 내용도 양도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 경하고 준비와 발표까지 전 과정을 아이들이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학부모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요일이 달랐으면 다른 도서관의 강사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아쉽다. 발표회를 준비하는 강사도 있었고, 문집을 아주 알차게 준비하는 강사도 있었다. 각자 생각한

* 발표회와 마찬가지로 문집 역시 아이들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쇄 등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되도록 아이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편집회의를 아이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 회의에서 문집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발표회가 아이들 스스로 준비하는 연극이나, 낭독회라면 문집은 아이들이 만드는 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도움이 최소화될 때 가장 빛나는 문집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글로 만든 문집보다는 아이들이 글 쓰고 만든 문집이 정말 아이들의 문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로 잘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시 모여 공유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했다. 특히 1, 2년차 강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물론, 나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는 3, 4년차에게도.

11 오늘은 12차시, 발표회를 대신한 학부모 통합 프로그램이다. 학부모들이 적게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대부분 참가하셨다. 토, 일에도 일을 하시는 한 부모 가정의 주노 어머니만 못 오신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다. 아, 이런 점을 살피지 못하고 또 내 생각으로만 통합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반성했다. 보조강사인 다락희와 꿈도담 선생님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부모님이 못 오시는 아이는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가 참가했다. 2기에는 좀 더 다른 통합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지난 11차시에는 ‘도서관 밖 프로그램’(체험 학습이

‘체험 학습’은 원래 글이 아닌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말하지만, 정형화되어 오히려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공연 관람, 정형화된 만들기 체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밖 수업’은 철저히 아이들을 중심에 둔, 도서관 내 수업 공간에서 할 수 없었던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마을 조사나 소풍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장소를 정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반나절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수동적인 구경이나, 정형화된 만들기보다는 지역의 한곳으로 조사를 나가거나, 신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개울이나 강, 바다가 있는 지역은 그런 곳을 활용한 놀이, 골목이나 산, 언덕이 있는 곳은 또 그 나름대로 그곳에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아이들은 그 경험을 충분하고도 풍부하게 자신의 글쓰기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으로 마을 조사에 나섰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도를 글로 그리는 것이 저번 시간의 주요 내용이였다. 먼저 지도로 우리 마을 골목골목을 그리고 자신이 눈여겨둔 주요 포인트를 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이야기, 박스를 수집하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강아지 이야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예쁜 언니

이야기 등등,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 지도를 그려보았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이들도 결국 담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대성공.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통합 프로그램을 한다. 아이들의 가족은 어떤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일까? 자못 궁금하다.

12 오늘은 마지막, 13차시 프로그램이다. 원래대로라면 발표회를 이날 해야겠지만 지난주 12차시 때, 통합 프로그램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이번 1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남다른 감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최열심이가 질문을 했다. 우리는 문집 안 만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 우리도 만들까? 그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 글을 컴퓨터에 옮겨서 할까? 그 일을 누가 할까? 했더니, 아뇨, 그냥 우리가 쓴 거 모아서 해요. 우리 글씨가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글을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적게 쓴 사람도 있는데, 다 모아서 할까? 아뇨, 그럼 공평하지 못해요. 자기 글 중에서 다섯 개만 내기로 해요.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왔다. 마치 편집 회의하는 것처럼. 어느새 나는 지켜보고 있고, 아이들이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한 시간은 모은 것으로 책을 만들었다. 풀칠도 하고, 끈으로 묶어서 제본을 했다. 구멍 뚫는 것은 좀 도와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책은 한 권인데 아이들은 10명이 넘었다. 아, 큰일 났다. 뭐 어찌겠는가, 아이들이 해결하도록 해야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이 가지든 어떻게 하겠지.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좋은 의견이 나왔다. 이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다는 것이다. 보고 싶을 때 도서관에 와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면 모두가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꿈도담

선생님을 일제히 쳐다봤다. 처음에는 약간 당황해하시더니 이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하신다. 아이들이 도서관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정기간행물 코너에 이 책을 놓고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물론, 빌려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2기 때, 그리고 이후에도 6개월마다 한 권씩 아이들 문집이 나오면... 와우! 아이들은 나보다 더 기쁜 표정이었다. 도서관에 와서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쓴 글이 담긴 문집을 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멋진, 《꿈글문집》 1호가 완성되었다. 그렇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자란다.**



나에게 문학은 상상이다.
 나에게 문학은 친구다.
 나에게 문학은 아이스크림이다.
 어려운 것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다.
 - 수택초등학교 2학년 곽유나

나에게 문학이란 독수리다. 왜냐하면 문학을 먹이처럼 가져다준다.
 나에게 문학은 초콜릿이다. 힘든 일도 녹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은 선풍기다. 바람을 타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은 웃음이다.
 - 교문초등학교 2학년 서영호

나에게 문학이란 내 생각의 문을 열게 해 준 열쇠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상상의 방을 열게 해 준 열쇠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재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 선생님과 함께 기발한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주어진 시간동안 마음껏 놀게 해 준 놀이 동산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친구들이 생각 못한 기발한 생각을 갖게 해 준 내비게이션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상상을 초월한 꿈을 꿀 수 있게 해 준 연필과도 같다.
 - 구지초등학교 5학년 백진오

나에게 문학이란 또 하나의 뇌이다.
 왜냐하면 나의 보통머리말고도 기발한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학교다. 왜냐하면 내게 친구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신발이다. 왜냐하면 나를 걷게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놀이방이다. 왜냐하면 문학수업은 공부가 아닌 놀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지우개이다.
 왜냐하면 나의 평범한 생각은 지우고 새로운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회의이다.
 왜냐하면 나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동인초등학교 4학년 송유나

문학 프로그램 설계하기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바로 문학 프로그램 교안

1 나는 누구인가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이전에 문학 강사는 스스로에게 문학에 대한, 삶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안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학 프로그램의 교안은 지난해 까지 여러 문학 강사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학 프로그램 교안 예시가 매년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교안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이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다락의 문학 프로그램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프로그램 설계는 한 명 한 명에 맞춘 수업 디자인이며,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는 진심어린 마음을 매번 되새기지 않으면 문학 정신은 없는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모두를 문학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글을 잘 쓰는 아이를 원한다면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문학 정신을 수업 전반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교육 철학이 있는가, 하고. 그 물음이 곧 아이들에게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묻게 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눈높이는 그다음입니다.

① 문학 강사에게 문학은 무엇인가요?

나는 왜 문학으로 아이들을 만나려 할까? 단순히 직업이나 생활에 필요해서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문학을 가르치거나 알려주기 전에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기 위한 점검도 되지만 자신의 '지금, 여기'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문학이 무엇인지 잘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문학을 말하고 문학 정신을 가지기를 바라다면 모순일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문학 이전에 나를 위한 문학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도 자신을 위한 문학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언어로든 알아가는 게 문학 프로그램의 근본 내용일 테니까요.

② 아이들과 문학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하고 싶나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나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결국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나요? 작고 하찮은 것들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나요? 세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은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왜 꿈을 꾸야 해!' 하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쉽게 휘청거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마음 근육을 키워주고 싶나요? 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 그걸 시간과 차시에 맞춰 줄이지 마세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와 대면하고 싶다면,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모든 문을 열어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문학이 나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문학으로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깊고 넓고 큰 생각만 생각인가요? 점 하나를 찍는 행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하고 싶나요?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문학 강사 한 사람은 하나의 세상이고 아이들 역시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불완전하거나 불안정할 때 문학 프로그램은 서로의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문학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자기 철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의 철학은 학문으로서의 특정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철학이든 상관없으며 철학인 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을 가진 문학 강사의 프로그램 시간에는 그래서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문학 강사와 아이들, 서로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수업의 주인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①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도화지, 어린아이, 스펀지, 외계인, 화수분, 창조덩어리, 사회화가 덜 된 존재, 듣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② 학년별 발달 단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발달의 특성은 크게 몸과 마음의 발달, 나와 타인, 나와 사회, 나와 세계 등의 관계의 발달, 언어의 발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③ 저학년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정, 용기, 배려, 책임 등의 마음자리가 커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사회성이 길러지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물이나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생기며,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나와 세상을 분리시켜 이해하며 호기심이 증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언어의 추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 어휘력과 독해력이 향상되는 시기입니다.

④ 고학년은 신체와 감정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생각이 깊어지는 동시에 사회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증대되는 시기로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줄 알고 논리적인 사고력, 직관력, 통찰력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합니다.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⑤ 초등 저학년과 고학을 중심으로 발달 단계의 특징을 예로 들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집단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세계에 다가가는 강사의 섬세하고 따뜻한 세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3 문학은 아이들에게 ○○한 세상을 보여주나요?

문학으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말과 글로 문학이 살아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풀어내고, 놀고, 읽고 쓰면서 아이들은 생생한 문학을 만들어갑니다. 너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강사인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역시 철학을 가진 강사가 가지는 자연스런 물음)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에게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 것과 나의 물음이 조금씩 연결되고 답을 얻어가는 것, 서로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문학 프로그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4 프로그램의 열개

‘생각 열기(다르게 보기) → 주제에 맞는 자료 보기 → 몸으로 느끼기 → 내 생각 말하기, 친구 생각 듣기 → 글로 정리하기 → 생활로 연결하기’ 등으로 프로그램의 열개를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시이며, 프로그램 열개는 강사가 구성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매 시간 후 반성적으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에 대해 수정을 거듭하는 것은 서로 배움의 철학을 가진 문학 강사로서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나의 수업에서 놓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계속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4-1. 생각이 술술 풀려야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생각이 커질까요?

단어를 많이 열거하면서 생각이 커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생각이 커지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커집니다.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이 커지고, ‘독특한 것, 나만의 것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생각이 커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생각이 커지고,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커집니다. 스스로 원하는 색깔의 종이를 선택할 때부터 생각이 시작되고 생각이 커지고, 천, 비닐, 스티로폼, OH필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생각이 커집니다. 생각을 글로 엮어낼 때 생각이 커지고, 무엇보다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이 커집니다. 매 차시, 생각을 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면 글쓰기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2.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주제를 선정합니다. ‘대주제 선정하기 → 소주제로 나누기 → 주차별·주제별 책 선정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각 열기 도구 선택하기 순으로 만들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① 비오는 날에는 우산에 글을 쓰고, 날이 추운 날에는 아이들의 작품을 모두 이어 붙여 ‘문학 이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에 사용되는 도구와 준비물이 이번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생각해봅니다.

② 주차별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어른이 참여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아이들의 흐름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모든 것이 열려 있는지, 아이 속에서 우리나라와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짜여 있는지, 준비한 질문이 다양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합니다.

③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가 보입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미리 짜놓는 것이 아니라 매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 되돌아보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아이들이 ‘오늘, 문학 시간엔 뭐하지’ 하고 궁금해하거나 혹은 아무 준비 없이 도서관에 오는 것처럼 문학 강사도 아무 준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교재나 교안 없이도 3시간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준비한 것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강사가 따라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창작하고 해냅니다. 아이들을 믿으면 믿는 그 이상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⑤ 신나게 놀고 나면 생활문 글쓰기에서 동화나 시, 소설 등의 장르 글쓰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초등학교의 예입니다)

저학년

- 사례 1) 몸, 마음, 공간, 세계, 상상, 관계 등 수업을 주제별로 구성한다.
- 사례 2) 시(운문), 이야기(산문), 생활문 위주로 장르를 구성한다.

- 사례 3) ‘나’에서 출발하여 ‘나의 집 만들기’, ‘우리 마을 만들기’, ‘세계와 우주 상상하여 글쓰기’ 등 점진적으로 주제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고학년

- 사례 1) 감정, 관계, 시간, 언어, 꿈, 세계 등 각 주제별로 수업을 구성한다.
- 사례 2) 캐릭터 만들기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사례 3) 사막, 우주, 바다, 하늘 등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사례 4) 나의 주변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를 둘러싼 사회와 세계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사례 5) 낯설게 하기, 캐릭터 관계도 만들기, 인물 성격 창조하기, 비유로 시 쓰기, 액자소설 쓰기 등 놀이를 통해 심화된 창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3. 사례로 보는 생각 열기 (이야기 만든 방법)

문학 수업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문학 시간에는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들이 펄펄 쏟아집니다. 이야기가 활활 넘쳐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을 보는 순간, 문학 강사는 ‘야호!’ 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글 쓰는 재미에 빠진 아이들로부터 “선생님, 손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① 주변에서 찾기

문학은 언어의 세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말이 되고 글이 됩니다. 아이들 손바닥에 동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윤이 손에는 무지갯빛 새가 숨어 있고, 도환이 손에는 바깥세상을 그리워하는 물고기, 헤라 손에는 나뭇잎 뒤에 꼭꼭 숨어 있는 달팽이가 있습니다. 서연이 손에는 진흙탕에서 목욕을 하는 보라색 하마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몸으로 수수께끼를 내기도 합니다. 성훈이는 몸으로 모음 ‘ㅏ’를 만들었습니다. 수빈이는 혜진이랑 함께 나오더니 자음 ‘ㄹ’을 만듭니다.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자모음을 맞춥니다. 작은 몸짓 하나가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자모음을 그립니다. 태양은 자음 ‘ㅇ’이 되고 바닷속 해초가 모음 ‘ㅣ’가 되었습니다. 이 활동으로 글자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② 캐릭터 정하기

문학 시간에는 주변에 모든 것이 캐릭터가 됩니다. 책상, 의자, 형광등, 비상구 표시등, 칠판 등 문학 시간을 진행하는 교실의 모든 사물이 재미있는 캐릭터가 됩니다. 길에서 보았던 돌멩이, 작은 풀도 캐릭터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채소나 물건들도 캐릭터가 됩니다. 아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 속 인물로 살아납니다.

“나는 당근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 안경을 쓰는데 당근은 눈에 좋은 음식이에요. 도시에서 자란 나는 당근을 직접 뽑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당근을 뽑는 기회가 생겼어요. 당근 뽑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잎을 잡아 당겼는데 잎만 툭하

고 떨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말라 있었고 마른 땅에서 당근은 잘 뽑히지 않는대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쇠스랑을 가지고 흙과 함께 당근을 들어 올렸을 때 당근은 기꺼이 뽑혀주었어요. 당근은 고집쟁이 같아요. 엄마는 가끔 나를 고집쟁이라고 불러요.”

‘코로바다’라는 네 글자를 보여주고 어떤 동물에게 어울리는 이름인지 물으면 코끼리, 바다코끼리,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 이름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동물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금방이라도 코로 받아버릴 것 같은 코뿔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나우나’, ‘쫓아쫓아’, ‘코로가마’, ‘힐끔힐끔’, ‘횡설수설 교수’ 등, 글자만 보고 아이들은 많은 동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동물들의 성격까지 확장해서 말합니다. 이 캐릭터들은 그림책 《별거벗은 코뿔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북극에 사는 파란 코’, ‘내 마음의 악돌이’, ‘발키 아저씨’와 ‘손커 아줌마’, ‘못 말리는 한소리’ 등. 아이들이 만든 이름으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북극에 사는 파란 코는 누구일까요? 북극곰일까요? 물고기일까요? 새일까요? 아니면 북극에 사는 소년의 이름일까요? 내 마음의 악돌이는 언제부터 생겨났나요? ‘발키’ 아저씨와 ‘손커’ 아줌마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발키’ 아저씨는 언제부터 발이 컸을까요?

글자 하나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근에게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이름을 지어줄 차례입니다. “나는 당근이다”라는 진수의 말에 글 속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③ 무한대로 확장하기

문학 시간, 아이들의 눈은 집과 마을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고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아이들 생각 속에서 모든 공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세계의 건축물을 보여준 후 아이들 각자의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PPT를 활용할 때, 한 장의 사진에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저절로 글이 되도록 질문을 구성하면 효과가 큽니다.



지윤이의 건축물은 처음에 구름 모양이었습니다. 구름 모양은 어느새 양으로 변했습니다. 수민이는 버스 모양 건물을 지었습니다. 버스 창문이 피아노로 바뀌더니 버스 바퀴가 음표가 되었습니다. 세은이는 걸어가는 모양의 바지를 그렸습니다. 이곳은 옷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건축가입니다.

‘문은 왜 네모일까?’가 궁금했던 서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가장 적합한 모양이 네모라는 것을 건축가인 아빠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여전히 예쁜 모양의 문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서희는 사람에게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문을 글 속에서 창조해냈습니다. 수민이는 녹지 않는 초콜릿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초콜릿을 먹었는데 녹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친구의 물음에, 입에 넣을 때만 녹는 초콜릿이라고 말해줍니다.

⑤ 입말로 쓰기

“오늘 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느꼈나요?” 하는 질문에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봤더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더라도 아이들은 갑자기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금방 지어냅니다. 길을 걷다가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발로 얼음을 쿵 쳤는지, 그냥 지나쳤는지, 지지직 깨지는 얼음 소리가 무엇과 비슷한지, 깨진 얼음의 모양이 무엇을 닮았는지, 얼음을 깨며 계속 놀고 싶었는지, 꿈다락에 오고 싶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시가 됩니다. 세 줄의 말에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아이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⑥ 글말로 다듬기

아이들은 대부분 말했던 것을 그대로 글로 쓰지 않습니다. 생각이 넘쳐나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줄 쓰기’도 무척 힘들어 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야호!” 드디어 연욱이가 글을 썼습니다. 첫날, “선생님, 저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어요” 하고 말하던 연욱이입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우리는 누구나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연욱이는 어렵게 첫 줄을 썼습니다. “파란 비가 내려요”라고요. 이제 그다음 줄을 이어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5 ○○ 주제로 풀어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꿈다락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쓰고 싶어 할까요? 그 힘을 길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스스로를 깨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문학 강사인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욕망을 발견하고, 쉽 없이 물어오는 질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꿈다락 문학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약 내가 준비한 시간이 교안대로 진행된다면, 내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건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 받아주고 대답도 잘하고 그에 합당한 질문도 잘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학 수업은 순응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기도 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로 빼딱하게 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러지 않도록 억지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꿈다락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문학 강사인 내가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요구대로 해주고 그 요구가 말이 되고 글이 되고 시가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자분자분 또는 씩씩한 말이거나 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론, 투정이었다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기도 하고, 괜히 먼 산만 바라보는 무심쟁이

얼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선생님 주변을 빙글빙글 맴도는 동그라미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발견하고 들어주면 그 이야기는 요구였다가, 욕망이었다가, 말이었다가, 글이었다가, 언어였다가, 시였다가, 소설이었다가, 문학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이라는 안내판을 들고 기다려주는 것이 문학 강사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중간에 어디에서 마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테니까, 앞으로 남은 삶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그 과정의 작은 단계인 매주차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곧 여러분들이 할 꿈다락 문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교안을 어떻게 짤까, 하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아이들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교안은 바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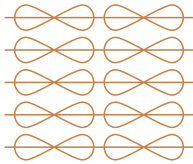
나에게 문학이란 나의 생각보따리다.
나의 뇌의 사랑이다. 창의력의 발상지다.
나의 눈을 넓혀준다.
나에게 문학이란 끄끄한 나의 생각의 빛나는 태양이다.
무지개다. 생각의 소용돌이다.
나에게 문학은 앞길을 밝혀주는 전조등이다.
문학은 끝이 없는 길이다.
- 인창초등학교 5학년 정선우

나에게 문학이란 재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 신기한 것을 보고 재미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니
세상이 점점 재미있게 느껴진다.
나에게 문학이란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시계다.
점점 시계가 지나갈수록 1초 1초마다 신비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학이란 놀이처럼 재미있는 공부다.
- 동인초등학교 4학년 김수민

생각하고 상상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해야하니깐.
나에게 문학은 생각하여 표현하는 생각의 방을 여는 열쇠다.
나에게 문학은 세상의 발전이다.
- 가운초등학교 4학년 박근우

나에게 문학이란 창의 나라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의 토요일은 즐거움을 준다.
처음 공부방인 줄 알았다. 다른 아이들이 쓴 것을 보고 놀랐다.
“공부인데 공부 같지 않다.” 라고 써져 있었다.
- 구지초등학교 2학년 노민욱

Q&A로 알아보는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관리

Q. 1학년 아동들은 아직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3학년 학생들로만 모집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수강생 모집 시 학년 구성의 기준이 있나요?

A.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학년 구성은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학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1학년뿐만 아니라 어떤 학년이어도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글보다는 표현에 맞춰 그 아이에 맞는 속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수강생 모집 시 1기에 수강했던 참여자들이 2기에도 수강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기 참여자가 2기에도 참여하는 게 가능한가요?

A. 1기 수강했던 참여자들이 2기에도 수강하는 것에 제한은 없으나,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1기와 2기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줘서 2기에는 새로운 참여자로 받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기와 2기 프로그램은 꼭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A. 1기와 2기 프로그램이 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기와 동일하게 2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1기 수업에서 수정할 내용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차상위계층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모집해야 하나요?

A. 차상위계층 모집 할 때는 지역 내 시·군청, 교육청 소외계층 관련 부서 및 학교,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프로그램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 기관과 단체와 연계하여 모집하면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들의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으면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어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A. 올해부터 달라진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의 특징은 지역성입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운영도 지역 도서관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강사도 함께 기획에서부터 참여하게 되므로 출석률을 제고하는 데는 무엇보다 도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2기부터는, 무엇보다 앞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수강한 아이들과 학부모를 통한 입소문이 출석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강 기간뿐만 아니라 수강 후에도 꿈다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아이의 내면이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운영주체 역할 및 분담

Q. 도서관 담당자와 강사가 어떻게 하면 공동 작업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A. 도서관 프로그램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강사입니다. 그렇다고 강사가 일방

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와 도서관의 관계는 물과 그릇과 같습니다. 강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예산과 인력, 네트워크로 지원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강사와 도서관 담당자는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요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담당할 역할과 영역은 나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주체가 공동 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꿈다락 프로그램은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Q. 주강사의 기준이 있나요?

A.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의 주강사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 문예창작 및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신춘문예, 문학지 등 각종 공모 당선 혹은 개인 저서를 발행하고 꾸준한 활동을 한 문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보조강사도 기준이 있나요? 보조강사의 섭외는 누가 하나요?

A. 보조강사는 주강사와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강사는 주강사의 강의를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문학적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강사가 섭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주강사가 보조강사의 섭외가 어려울 경우 도서관과 협의해 도서관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섭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관련

Q. 도서관 담당자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전체 13주차 프로그램 준비물을 확정해서 알려달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준비물을 한꺼번에 확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도서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대신에 전체 주차의 준비물 중의 1/3, 1/4주차 수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주세요. 또한, 준비물을 확정해서 알려드리려면 도서관과 강사 간의 재료비에 대한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공유하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Q. 교육 공간 이동이 잦아요. 또, 강의실에 최소한의 기자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요구해도 되는지? 꿈다락 교육 공간으로서의 최소 기준이 무엇인가요?

A. 꿈다락 교육 공간으로서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 시 유의해서 보는 부분은 공간이 인원 수용에 적절한지, 쾌적하고 안전한지, 빔 프로젝터 및 컴퓨터 등 기자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교육 장소는 공모 시 제출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도서관 담당자나 학부모의 요구들이 너무 다양해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도서관 담당자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 담당자는 기획 단계부터 함께 공동 작업을 해온 프로그램 진행의 한 축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자의 요구가 많다는 것은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결정한 것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미진해 빠진 부분에 대한 의견인지를 구분해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입니다.

학부모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부모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확인, 일반적인 요청(우리 아이에게 신경 많이 써주세요 등등)이 아니라면 문자나 전화보다는 대면해서 상담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발표회 진행 시 전시회나 공연 등 보여주기 위한 발표회가 아니라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 하나 도서관에서는 전시회나 공연 등을 요구해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발표회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기획 단계에서 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발표회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발표회만 따로 떼어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 등과 연계해서 이해시키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학부모 통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담당자와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은 강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가이드북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행인 주성혜

발행일 2016년 1월 31일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 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족문화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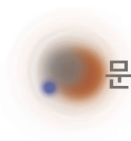
디자인 디자인에이트

구성·편집 최규승

자 문 최지혜 바람숲그림책도서관 관장

구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이준희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